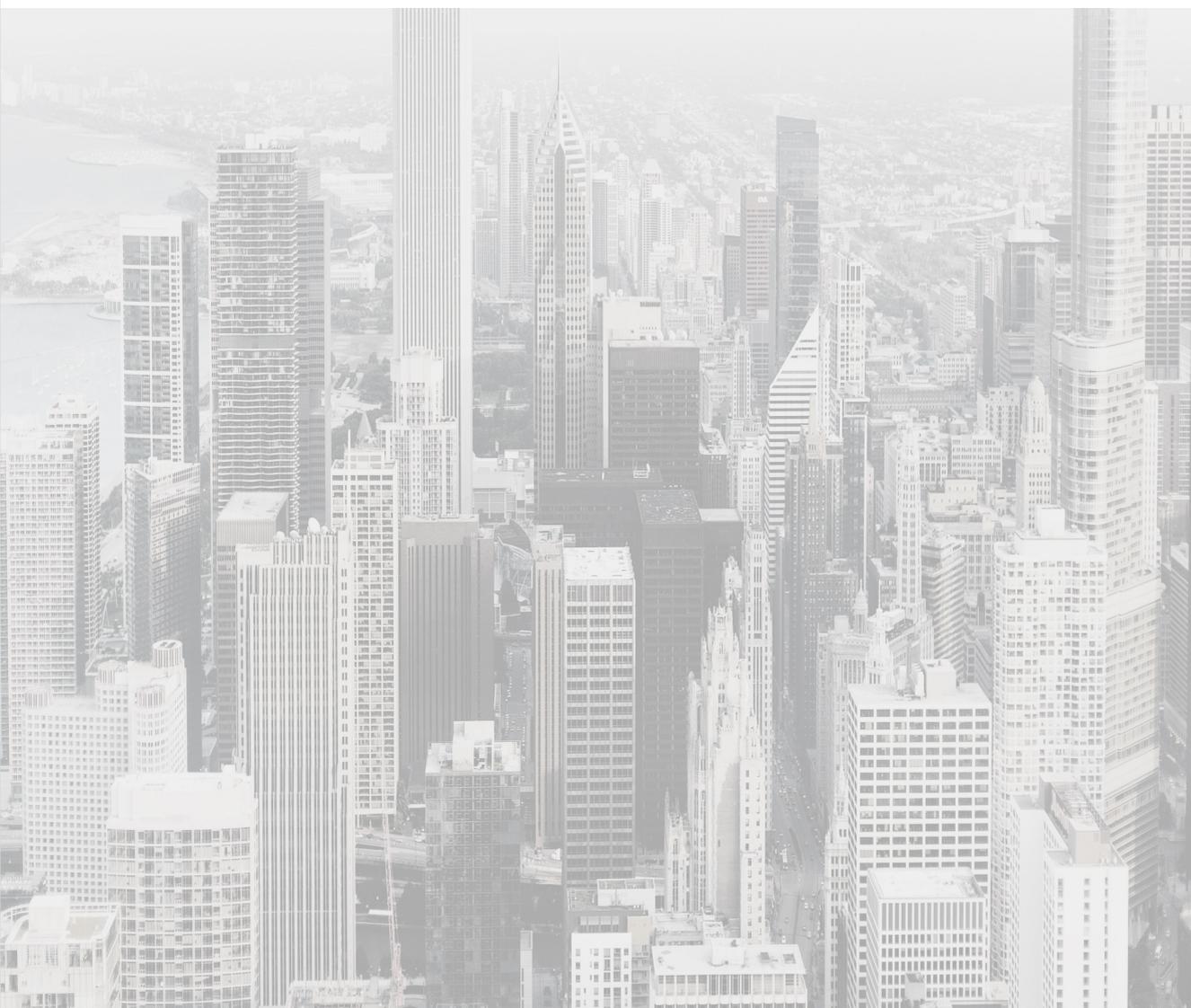


## CEO Report

#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됨. IMF는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원과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20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과 재화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 증가가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침.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며 3,000선을 넘어섰고, 장기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

2021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1% 성장 전망되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 전망되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4% 감소가 예상됨. 2021년 보장성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확대에 의해 전년 대비 3.6% 성장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저축보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6.5% 감소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호조세로 신규판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직접투자 선호 및 수익확정에 따른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15.3% 증가가 전망됨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8% 증가가 전망되며, 퇴직연금 제외 시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가 전망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 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3.1%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8.1% 증가가 전망됨

2021년 보험산업 신계약 초회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2.1% 감소가 전망됨.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정체와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로 전체적으로 2.5%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저축성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병·상해, 운전자·재물·통합보험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1.4% 증가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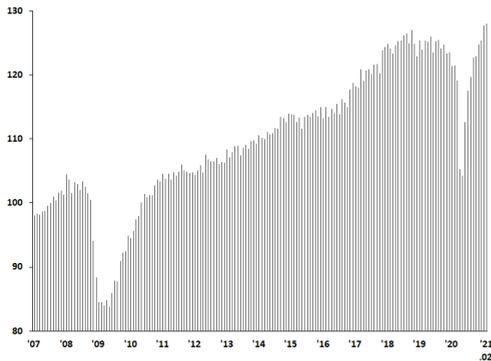
# I

## 경제·금융시장

### 1. 세계경제

- 2020년 상반기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2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함
  -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어 2020년 5월 최근 9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반등하여 2021년 2월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을 기록함
  - 2020년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1년 1/4분기 큰 폭으로 반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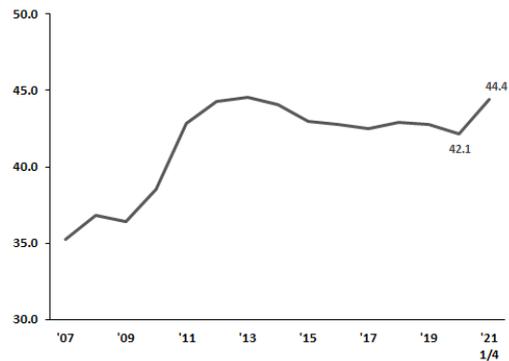
〈그림 I-1〉 세계 교역량 추이



주: 2010년이 100인 지수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4)

〈그림 I-2〉 우리나라 수출의존도



주: 수출의존도=수출/GDP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세계경제는 교역량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됨
  -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9년보다 6.1%p 하락한 -3.3%를 기록함
  - 2021년 1/4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 18.3%를 기록하였고,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5%, -5.1%를 기록함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세계	3.5	3.3	3.8	3.6	2.8	-3.3	-
선진국	2.4	1.8	2.5	2.3	1.6	-4.7	-
신흥국	4.3	4.5	4.8	4.5	3.6	-2.2	-
미국	3.1	1.7	2.3	3.0	2.2	-3.5	6.4
중국	7.0	6.9	6.9	6.7	5.8	2.3	18.3
유로지역	2.0	1.9	2.6	1.9	1.3	-6.6	-2.5
일본	1.6	0.8	1.7	0.6	0.3	-4.8	-5.1

주: 1)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임

2)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연율화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나,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IMF(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4); 중국 국가통계국(2021. 4); Eurostat(2021. 5); 일본 내각부(2021. 5)

○ IMF는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 2020년 세계경제 역성장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 백신 접종 확산 등에 따라 2021년 세계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의 추가 재정지원 발표와 백신 접종 개시를 반영하여 IMF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6.0%로 0.8%p 상향조정함<sup>1)</sup>

〈표 I-2〉 2021년 IMF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IMF	2020. 10	5.2	3.9	6.0	3.1	5.2	2.3	8.2
	2021. 4	6.0	5.1	6.7	6.4	4.4	3.3	8.4

자료: IMF(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sup>1)</sup> IMF(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 2. 국내경제

- 20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과 재화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8% 증가하는 데 그침
  - 2021년 1/4분기 투자와 수출입 전반이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2.4% 감소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9%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2021년 1/4분기 1.0% 증가함

〈표 I-3〉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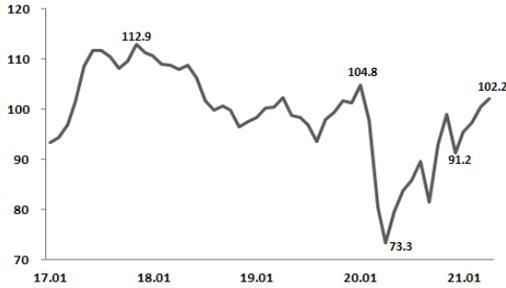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0	1.4	-2.7	-1.1	-1.2	-1.0	1.8
- 민간소비	1.7	-4.8	-4.0	-4.4	-6.5	-4.9	1.0
- 설비투자	-7.5	7.3	4.1	10.6	5.7	6.8	12.4
- 건설투자	-2.5	4.2	-0.1	-1.0	-2.5	-0.1	-2.4
- 지식생산물투자	3.0	2.4	4.1	3.9	4.1	3.6	4.1
- 재화수출	0.5	6.3	-11.5	-0.3	3.6	-0.5	5.5
- 재화수입	-0.8	3.1	-4.8	-0.1	1.4	-0.1	8.2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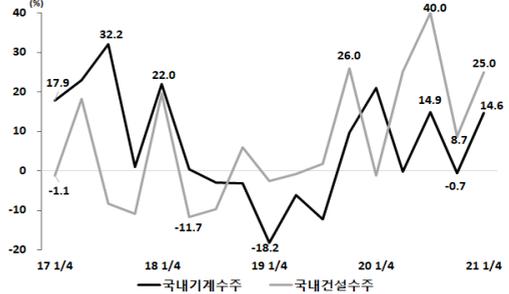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급격히 악화되었던 민간소비심리와 건설수주는 2021년 1/4분기까지 등락을 반복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함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3.3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반복되는 등락 속에서 상승세를 유지하여 2021년 4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 2021년 1/4분기 기계수주와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25.0% 상승함

〈그림 I-3〉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I-4〉 기계수주<sup>2)</sup>, 건설수주<sup>3)</sup> 증가율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기계수주는 선박 제외임  
 3) 경상임  
 자료: 통계청

○ 국내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국내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어 2021년 국내경제 성장률이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8%로 전망함
-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이 지연되어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4〉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F) <sup>1)</sup>	
			한국은행 <sup>2)</sup>	KDI <sup>3)</sup>
실질GDP	2.0	-1.0	4.0	3.8
민간소비	1.7	-5.0	2.5	2.5
설비투자	-7.5	6.8	7.5	8.5
건설투자	-2.5	-0.1	1.3	1.4
지식생산물투자	3.0	3.7	4.3	4.1
상품수출	0.5	-0.5	9.0	8.6
상품수입	-0.8	0.0	8.3	7.9
실업률	3.8	4.0	3.9	4.1
소비자물가	0.4	0.5	1.8	1.7
경상수지(억 달러)	600	753	700	829
상품수지(억 달러)	769	819	710	867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 달러)	-169	-67	-10	-39

주: 1) 2021(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5), 「KDI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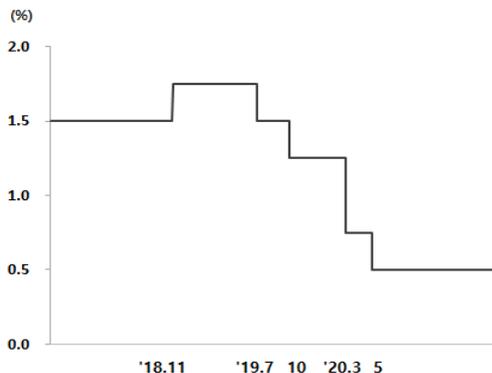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DI

### 3. 국내금융시장

#### 가.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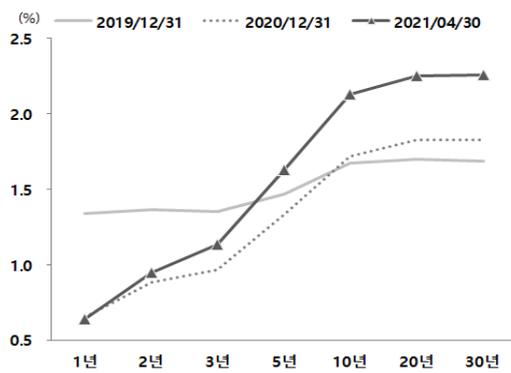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
  -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의 국채금리와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국내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향후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정부의 국고채 발행 계획의 영향으로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장단기 금리격차는 확대됨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으며, 자산 매입 및 가계·기업 대출 지원 정책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채권매입 및 2년물 국고채 금리 신설에 따른 단기 국채금리 발행비중 확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그림 I-5〉 한국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I-6〉 한국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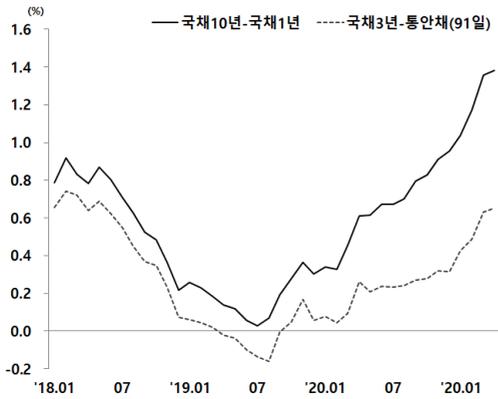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되는 추세임
  - 정부의 국채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스프레드(10년물-1년물)은 1월 105.2bp에서 4월 말 149.0bp까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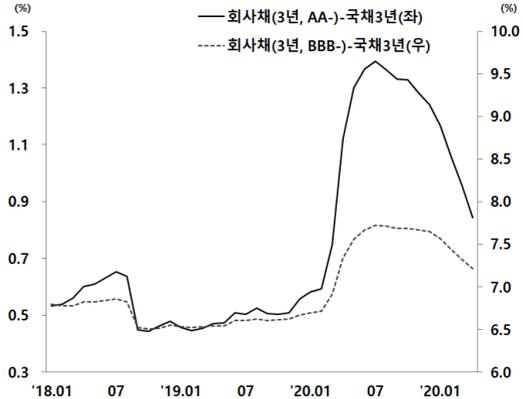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는 채권공급 확대, 비우량 회사채 매입 SPV 설립 등 회사채 발행시장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개선 기대에 따른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축소됨

〈그림 I-7〉 장단기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그림 I-8〉 신용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와 우리나라 국채(10년)금리, 국채(3년)금리가 각각 1.81%, 2.17%, 1.1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I-5〉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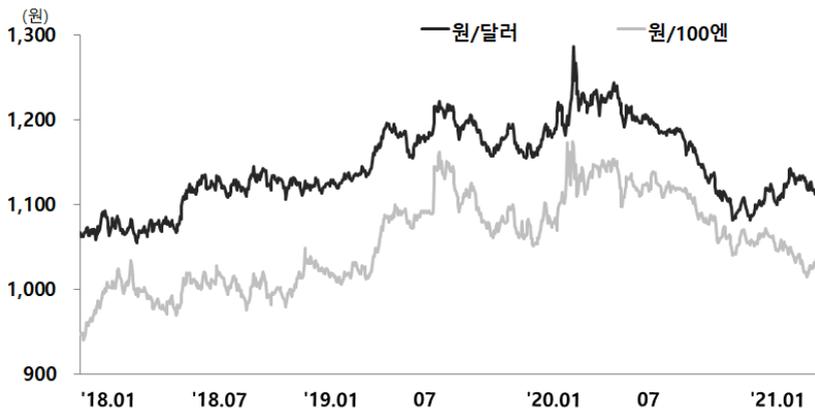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39	1.81	1.92	2.17	1.06	1.17

주: 2021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나.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국내 달러화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및 점진적 경제활동 정상화로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
  - 원/달러 환율은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해외주식투자 확대로 국내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3월 1,140원대로 상승함
  - 그러나 4월 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주요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
-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원/엔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으로 1월 초 100엔당 1,050원대에서 4월 말 1,010원대로 하락함

〈그림 I-9〉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하반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1~4월 평균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엔/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일본의 경제 전망 악화 등의 약세 요인이 혼재하여 평년 수준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표 I-6〉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115	1,065	106.8	109.0	1.20	1.19
JP Morgan Chase		1,118		106.5		1.18
PNC Financial		1,123		108.5		1.19
Citigroup		1,105		111.5		1.18
Morgan Stanley		1,078		104.5		1.25

주: 2021년 하반기에 대한 환율 전망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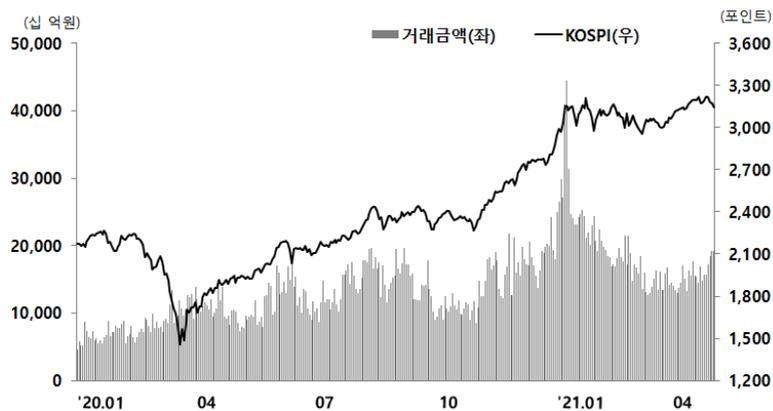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다. 주가

○ 2021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및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 기대와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3,000선을 넘어섬

-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글로벌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07년 2,000선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3,000선을 넘어섬
- 주요국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동결되는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과 위기를 기회로 인식한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그림 I-1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II

## 보험시장

### 1. 보험산업 총괄

- 2021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1% 성장이 전망되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생명보험 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저축보험의 감소 전환이 예상되나 퇴직연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 증가할 전망이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4% 감소가 예상됨
  - 2021년 손해보험 산업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이 전망되고, 퇴직연금 제외 시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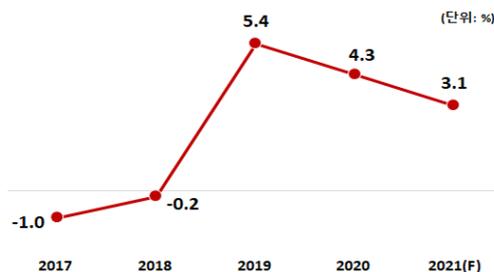
〈표 II-1〉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b>생명보험</b>	<b>110.8</b>	<b>-2.7</b>	<b>117.3</b>	<b>5.8</b>	<b>119.6</b>	<b>2.0</b>	<b>121.7</b>	<b>1.7</b>
(퇴직연금 제외)	(94.0)	(-5.1)	(92.6)	(-1.4)	(97.0)	(4.8)	(95.7)	(-1.4)
<b>손해보험</b>	<b>91.1</b>	<b>3.1</b>	<b>95.6</b>	<b>5.0</b>	<b>102.3</b>	<b>7.0</b>	<b>107.2</b>	<b>4.8</b>
(퇴직연금 제외)	(80.3)	(2.2)	(83.8)	(4.4)	(89.2)	(6.4)	(93.0)	(4.3)
<b>전체</b>	<b>201.9</b>	<b>-0.2</b>	<b>212.8</b>	<b>5.4</b>	<b>221.9</b>	<b>4.3</b>	<b>228.9</b>	<b>3.1</b>
(퇴직연금 제외)	(174.3)	(-1.9)	(176.4)	(1.2)	(186.2)	(5.6)	(188.7)	(1.3)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II-1〉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증가율 전망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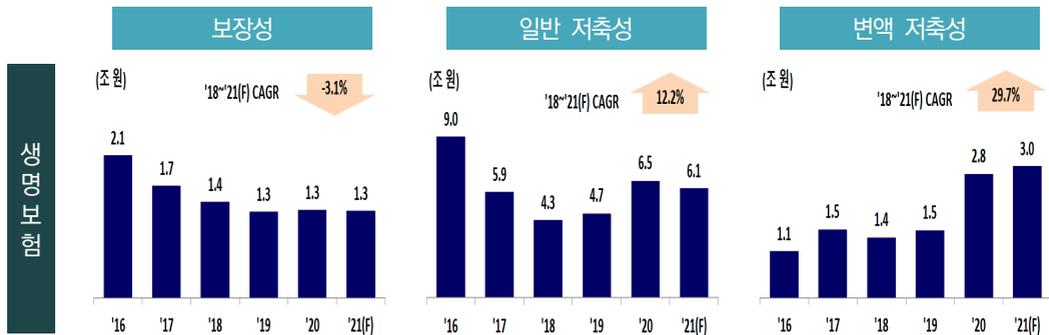
**Box 1** 2020년 10월 전망 이후 환경변화

- 2020년 10월 수입보험료 전망 이후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민간소비 회복은 미미하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는 상승세에 있음
  - 2020년 실질GDP는 설비투자, 수출입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4%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던 민간소비가 5.0% 감소하면서 침체가 심화됨
  - 저금리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 및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는 6월 7일 3,252.12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한편 국고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 상승 및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보험산업에 영향이 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 크게 상승함
  
-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은 6월 10일 기준 전국 1차 접종 인원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일일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2021년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의 순서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접종 초기 백신수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기준 전국 1차 접종 인원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유력해지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으나,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2020년 10월 전망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해 볼 때, 민간소비 회복 부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및 개인보험수요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 수요 변화도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민간소비 부진으로 개인보험 수요의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020년 정책효과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개인보험과 달리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수출입 등의 실물경제 변수에 민감한 기업성보험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빠른 것으로 예상됨
  -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나 금리 상승의 지속성과 상승폭에 따라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시중금리 상승이 단기에 그칠 경우 예정이율 변동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 금리와의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수요변화가 나타날 것임

## 2.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 2021년 보험산업 신계약 초회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2.1% 감소가 전망됨
  - 2021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정체와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로 전체적으로 2.5% 감소할 전망이다
  - 2021년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저축성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병·상해, 운전자·재물·통합보험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1.4% 증가가 전망됨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일시납 저축보험 확대에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저축보험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할 전망이다
  - 보장성보험<sup>2)</sup> 초회보험료는 대면채널 부진, 종신보험시장 정체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임 (CAGR<sup>3)</sup> -3.1%)
  - 일반 저축성보험<sup>4)</sup> 초회보험료는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에는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CAGR 12.2%)
    - 저금리로 다른 금융권 대비 일시적인 금리경쟁력 상승<sup>5)</sup> 등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금융시장 안정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CAGR 29.7%)

〈그림 II-2〉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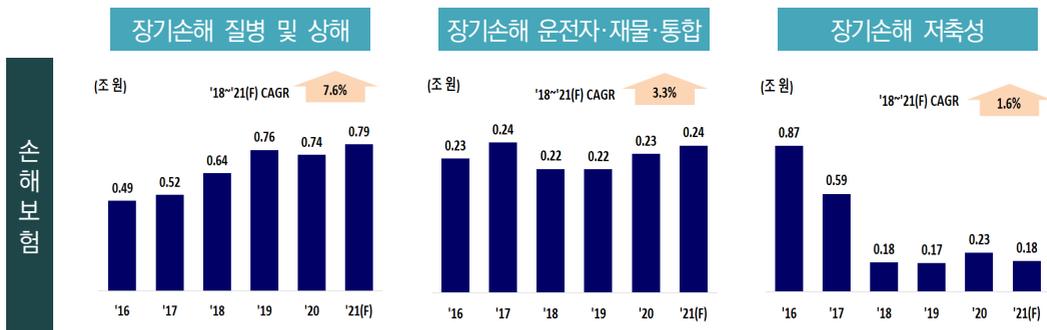
주: 1)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2) CAGR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 사망보험(변액종신 등 제외) 등을 의미함  
 3) CAGR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초회보험료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임  
 4)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제외)을 의미함  
 5) 저축성보험의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금융권 대비 소폭의 높은 금리를 유지했음

○ 2021년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장기손해 질병 및 상해보험 초회보험료가 소폭 증가하고 운전자 보험이 고성장이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장기손해 질병 및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 운전자·재물·통합보험 초회보험료는 교통사고 배상책임 강화에 따른 운전자보험의 신규가입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것임(CAGR 3.3%)
-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금리 하락 등으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CAGR 1.6%)

〈그림 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초회보험료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회보험료의 수입보험료 성장기여도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비중은 FY2010 26.6%에서 2020년 18.8%로 축소되었으며, 같은 기간 손해보험 장기 저축성보험 비중도 19.2%에서 8.4%로 감소함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비중은 FY2010 2.0%에서 2020년 2.3%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2020년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재물·통합형 보험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FY2010 대비 모두 0.7%p 축소됨

〈표 II-2〉 보험산업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구분		FY2010	2015	2020
생명 보험	보장성보험	2.0	5.6	2.3
	일반저축성보험	26.6	22.9	18.8
	변액보험	12.8	6.2	18.0
손해 보험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	2.5	2.1	1.8
	장기 운전자·재물·통합형보험	2.4	1.5	1.7
	장기 저축성보험	19.2	14.0	8.4

주: 종목별 수입보험료에서 가운데 초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생명보험

#### 가. 수입보험료 개요

-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 확대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4.8% 증가함
  -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전 판매 확대효과, 변액종신보험 및 중저가형 건강보험 실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 일반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저축보험 신규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변액저축성보험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호조세로 신규판매가 확대되었으나 해지 역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3% 감소함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4% 감소가 예상됨
  - 보장성보험은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확대에 의해 전년 대비 3.6% 성장이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가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신규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지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표 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sup>2)</sup>	427,858	2.5	444,468	3.9	461,395	3.8	477,884	3.6
저축성 <sup>3)</sup>	504,233	-10.8	474,110	-6.0	501,451	5.8	471,406	-6.0
일반저축성	335,669	-13.5	316,422	-5.7	347,442	9.8	324,954	-6.5
변액저축성	168,563	-5.0	157,688	-6.5	154,009	-2.3	146,452	-4.9
기타 <sup>4)</sup>	7,616	-0.4	7,659	0.6	7,498	-2.1	7,473	-0.3
<b>합계</b>	<b>939,706</b>	<b>-5.1</b>	<b>926,237</b>	<b>-1.4</b>	<b>970,344</b>	<b>4.8</b>	<b>956,763</b>	<b>-1.4</b>
퇴직연금	168,725	13.2	246,387	46.0	225,528	-8.5	259,970	15.3
<b>전체</b>	<b>1,108,431</b>	<b>-2.7</b>	<b>1,172,624</b>	<b>5.8</b>	<b>1,195,872</b>	<b>2.0</b>	<b>1,216,733</b>	<b>1.7</b>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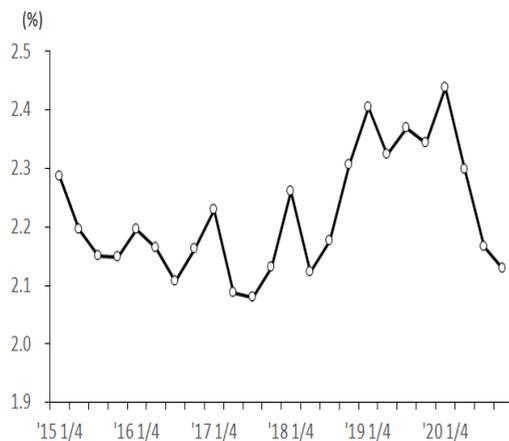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보장성보험<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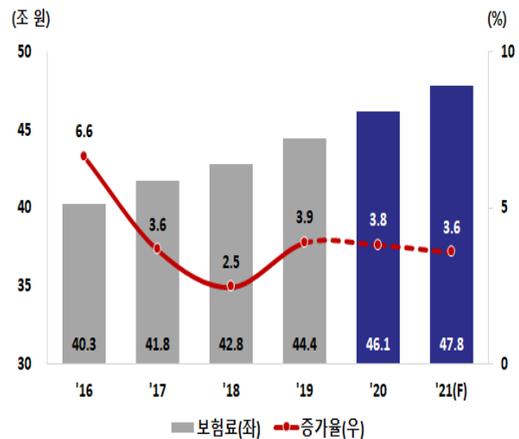
- 2020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이전 보장성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8% 증가함
  - 고령화 심화와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 확대로 중저가형 건강보험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 호조세로 변액종신보험의 신규판매도 확대됨
- 2021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상품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와 판매규제 강화<sup>7)</sup> 등으로 2020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한 전년 대비 3.6% 증가가 전망됨
  - 그러나 2020년 신규판매 확대에 따른 계속보험료 증가와 보험료 인상효과 등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완만한 성장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이 예상되나 요율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임
  - 한편, 그동안 경기 둔화 및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보장성보험 해지율이 상승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 부터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음

〈그림 II-4〉 보장성보험 해지율 추이(분기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5〉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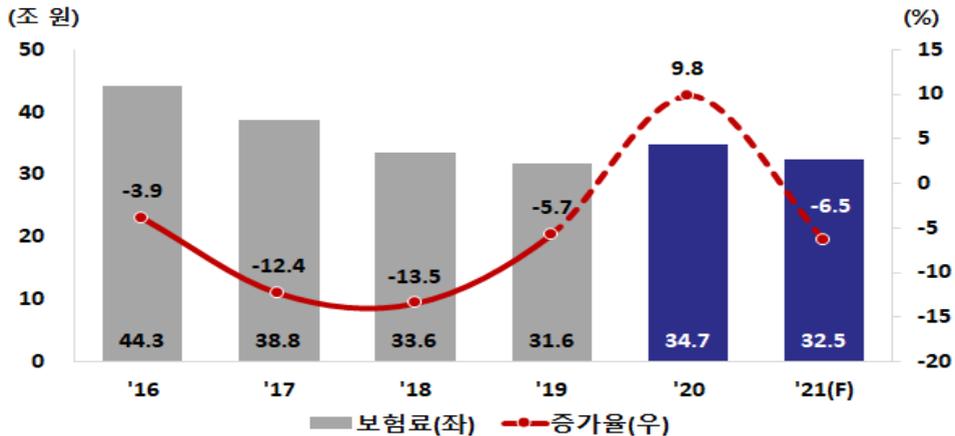
6)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구성됨

7) 2021년부터 유지율 제고 등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계약 첫째 수수료가 1년 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

## 다. 일반저축성보험<sup>8)</sup>

- 2020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보험의 상대적 금리 경쟁력 확대 등으로 일시납 중심의 저축보험 신규판매가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9.8% 증가함
  - 저축보험은 예·적금 대비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으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판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연금보험은 2020년 4월 이후 신규판매가 회복함
- 2021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저축보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6.5% 감소가 전망됨
  - 일반연금보험은 고령화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적 수요는 존재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증이율 하락으로 수요 확대가 제한적일 것임
  - 개인연금<sup>9)</sup>은 특별한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역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저축보험은 2020년 단기 유동성 자금이 크게 유입된 바 있으나, 이차역마진 우려로 지속적인 신규판매 확대는 어려울 것임

〈그림 II-6〉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일반저축성보험에는 변액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일반연금, 개인연금, 생사혼합보험 등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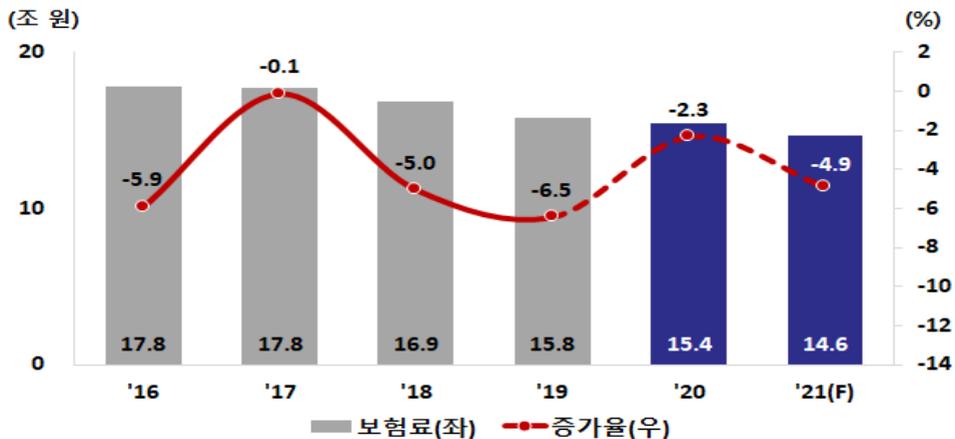
<sup>8)</sup>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함

<sup>9)</sup>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하나임

## 라. 변액저축성보험<sup>10)</sup>

- 2020년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상승 추세에 따른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지 증가로 계속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3% 감소함
  -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양한 보증옵션을 부가한 변액저축성보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였음
  - 2020년 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던 주식시장이 중·하반기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신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해지 증가 등으로 전체 수입보험료는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냄
- 2021년 변액저축성보험은 2020년과 유사하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호조세 등으로 신규 판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직접투자 선호, 수익확정에 따른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 2020년 주식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펀드 또는 변액연금과 같은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 선호가 증가하고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변액보험 해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경기회복세 지연, 미·중 갈등 심화, 금리 인상 여부 등과 같은 잠재 위험 요인들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변액저축성보험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음

(그림 II-7)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변액저축성보험에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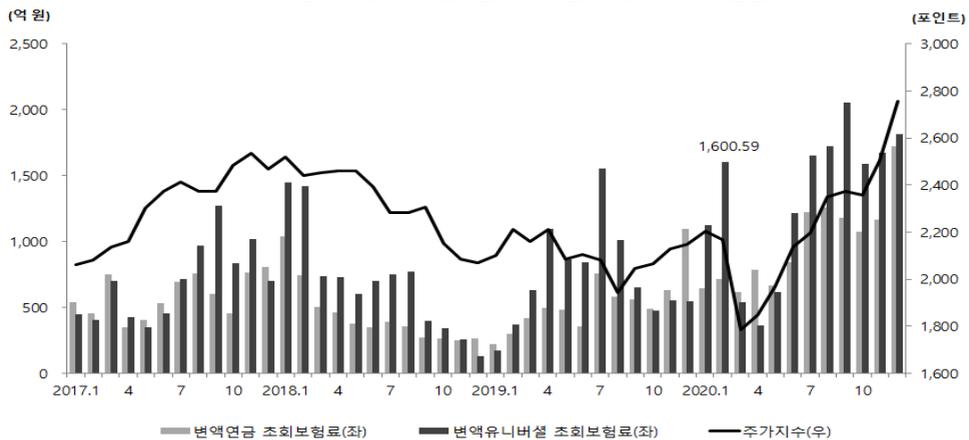
10)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 Box 2 주가와 변액저축성보험

○ 2020년 하반기 주가 상승세로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세를 보임

- 2020년 초 주가 하락세로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주식시장 회복세로 변액저축성보험 신규가입 수요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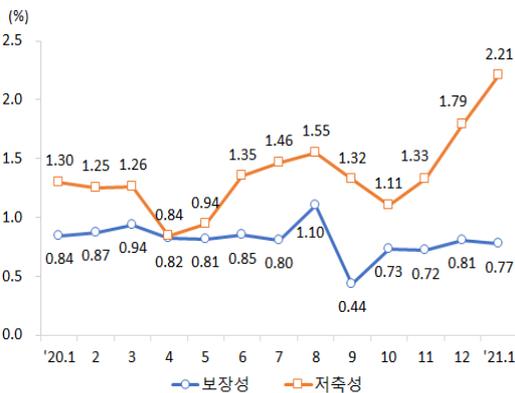
〈Box 2 그림 1〉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월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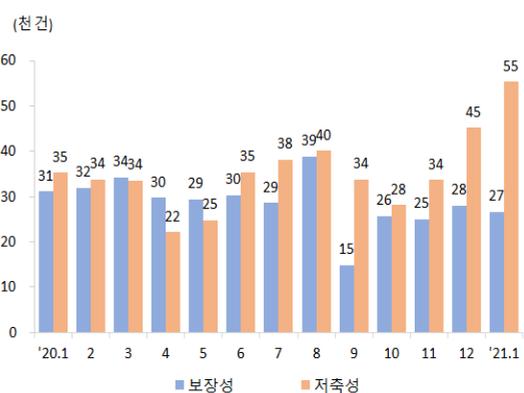
○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주가지수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회복하고 추가 상승하기 시작한 2020년 3분기와 4분기 크게 상승함

〈Box 2 그림 2〉 변액보험 해지율(건수)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Box 2 그림 3〉 변액보험 해지 건수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4. 손해보험

### 가. 손해보험 개요

-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7.0% 성장하였고, 퇴직연금을 제외 시 6.4%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호조세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11.6%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 또한 해상보험,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나, 개인연금은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9.1% 감소함
-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기저효과로 4.8% 증가가 전망되며, 퇴직연금 제외 시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가 전망되며,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의 특별한 변화요인이 없는 상황으로 6.8% 감소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어 전년 대비 3.1% 증가가 전망되며,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기타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5.6%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II-4〉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8		2019		2020		2021(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 손해 보험	합계	505,736	3.0	530,989	5.0	559,223	5.3	587,577	5.1
	질병·상해	326,348	10.0	361,902	10.9	398,367	10.1	432,585	8.6
	저축성	45,071	-28.8	34,394	-23.7	27,516	-20.0	21,471	-22.0
	운전자	38,009	8.9	41,063	8.0	45,053	9.7	48,968	8.7
	기타 <sup>2)</sup>	96,308	0.2	93,629	-2.8	88,287	-5.7	84,552	-4.2
개인연금	35,163	-5.0	32,912	-6.4	29,923	-9.1	27,892	-6.8	
자동차	167,202	-0.8	175,677	5.1	196,128	11.6	202,264	3.1	
일반손해보험	94,769	6.3	98,504	3.9	106,692	8.3	112,645	5.6	
<b>합계</b>	<b>802,870</b>	<b>2.2</b>	<b>838,082</b>	<b>4.4</b>	<b>891,966</b>	<b>6.4</b>	<b>930,378</b>	<b>4.3</b>	
퇴직연금 <sup>4)</sup>	107,777	10.2	117,781	9.3	131,183	11.4	141,761	8.1	
<b>전체</b>	<b>910,647</b>	<b>3.1</b>	<b>955,864</b>	<b>5.0</b>	<b>1,023,149</b>	<b>7.0</b>	<b>1,072,139</b>	<b>4.8</b>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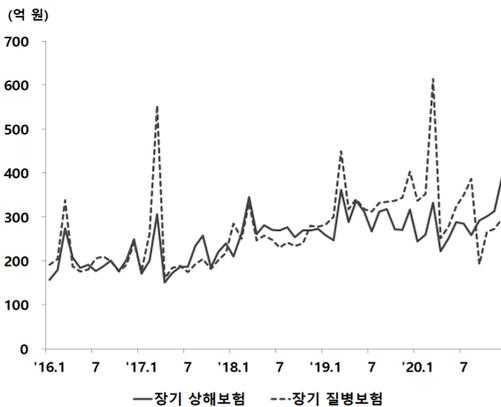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장기손해보험

○ 2020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5.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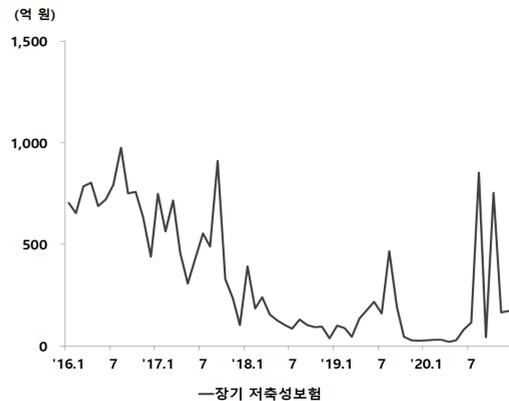
- 장기 질병·상해보험은 보험료 인상 전 신규판매 확대와 갱신 보험료 인상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함
- 장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배상책임 강화에 따른 신규가입 확대에 힘입어 고성장한 반면, 장기 저축성 보험은 저금리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판매유인 저하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함

〈그림 II-8〉 장기 질병·상해보험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9〉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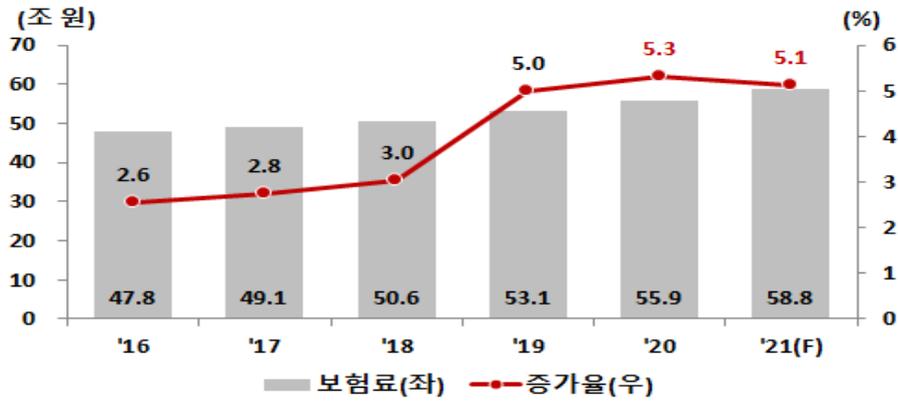
- 장기 질병·상해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sup>11)</sup> 증가세는 판매경쟁 소폭 완화, 대면영업 환경 악화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계속보험료<sup>12)</sup>는 갱신 보험료 인상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
- 장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과 관련한 법률<sup>13)</sup> 강화 추세로 고성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저축성보험은 손해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지속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11) 보험료 중에서 1회차 보험료를 의미함

12) 보험료 중에서 2회차 이상의 보험료를 의미함

13)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그림 II-1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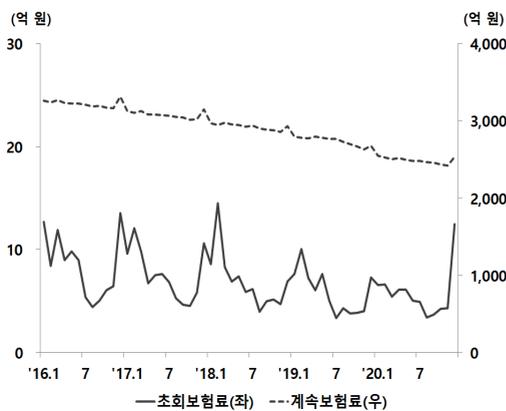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개인연금

○ 개인연금<sup>14)</sup> 원수보험료는 2020년 9.1%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에도 6.8% 감소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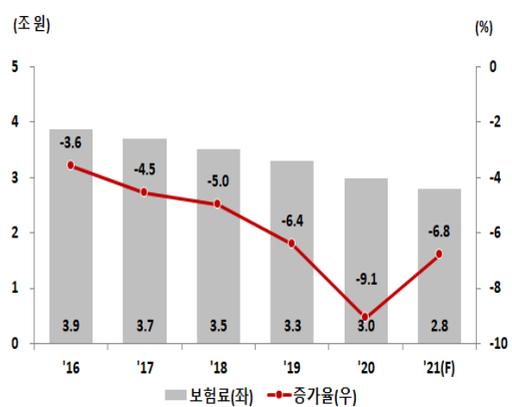
-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 개선도 어려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II-11〉 개인연금 초회 및 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4)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하나임

## 라.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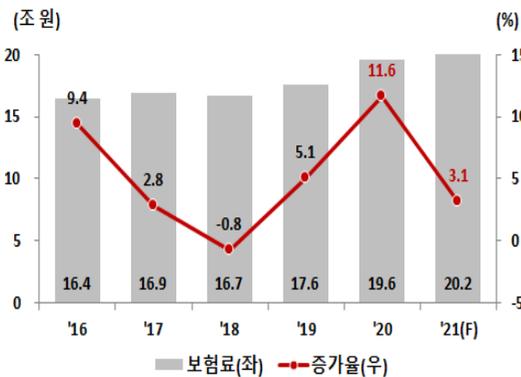
○ 2020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함

- 자동차보험의 누적된 적자 개선을 위하여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짐
-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진작 조치의 일환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승용차 판매가 대폭 확대됨
  - 정부는 2020년 1~6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 데 이어 2020년 7~12월에는 30% 인하함
- 다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판매 확대 추세가 계속됨

○ 2021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3.1%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2020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보험료 인상효과는 2021년 대부분 소멸될 것임
- 2020년 12월까지로 예정되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1년 6월까지 연장<sup>15)</sup>되었으며, 승용차 판매 확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증가와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자동차보험의 가격 민감도는 높아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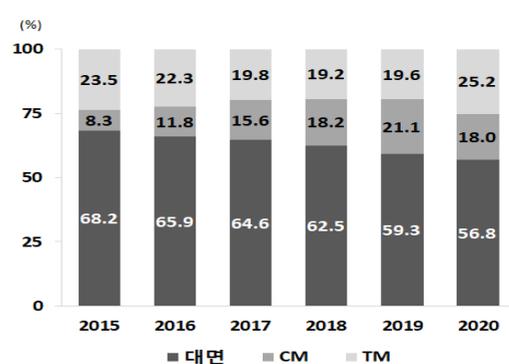
〈그림 II-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4〉 채널별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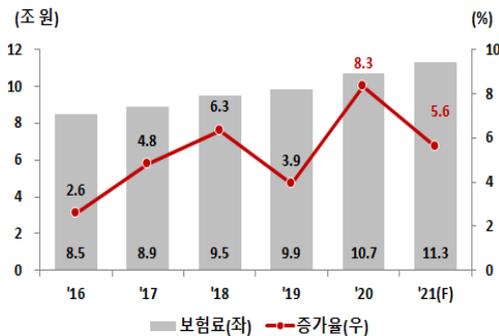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5) 기획재정부(2020. 12. 17),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마. 일반손해보험

- 2020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인공위성 관련 해상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특종보험 고성장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함
  - 화재보험은 주택화재 관련 신규가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함
  - 해상보험은 조선업 회복세에 따른 선박보험 증가와 인공위성 관련 우주보험 급증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함
  - 보증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함
  - 특종보험은 가입 의무화 확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증가세,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함
- 2021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전망됨
  - 화재보험은 주택화재의 신규가입 확대가 예상되나 요율 조정 및 장기재물보험과 특종보험 중 종합보험으로의 수요 분산 등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해상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량 증가, 조선업 경기회복 등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0.2% 감소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정부의 중금리 대출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3% 증가가 전망됨
  - 특종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추세 지속과 휴대폰보험 등과 같은 신규담보 확대로 6.6% 증가가 전망됨

〈그림 II-15〉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5〉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20		2021(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 합계	106,692	8.3	112,645	5.6
화재	2,762	1.6	2,770	0.3
해상	7,042	17.4	7,031	-0.2
보증	20,296	5.0	21,163	4.3
특종 <sup>2)</sup>	76,592	8.7	81,680	6.6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 권원보험 등)에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5.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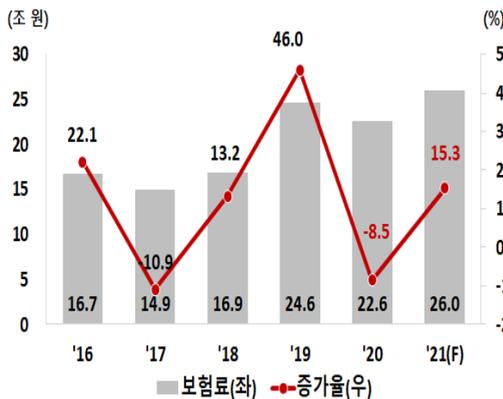
○ 2020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전년 대비 -8.5%, 손해보험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함

- 2019년 말 DB형 사외적립비율이 80%에서 90%로 확대되면서 2019년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0년에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감소세를 보임
- 손해보험의 경우 IRP(개인형퇴직연금)시장 확대 추세로 인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2021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전년 대비 15.3%, 손해보험이 전년 대비 8.1% 증가할 전망이다

- IRP(개인형퇴직연금)시장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sup>16)</sup> 등이 수입보험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수입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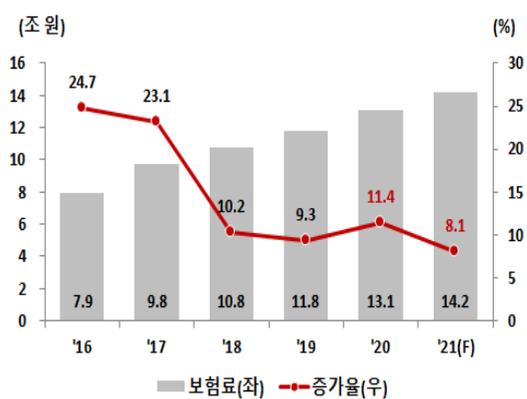
〈그림 II-16〉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7〉 손해보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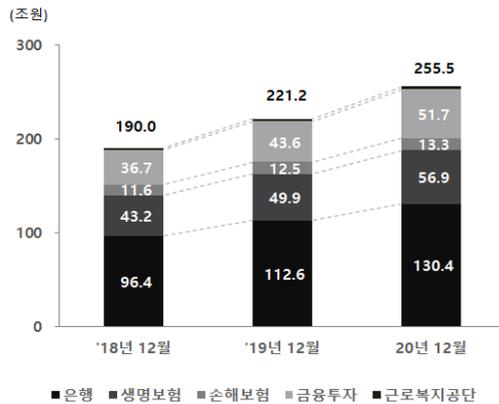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sup>16)</sup> 2021년 말 DB형 사외적립비율은 100%로 확대됨

### Box 3 퇴직연금 적립금 비교

-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면, 은행이 130.4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명보험 56.9조 원, 금융투자 51.7조 원, 손해보험 13.3조 원 순임
- 2020년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의 경우, 보험산업이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은행(15.8%) 금융투자(18.6%), 근로복지공단(21.0%) 모두 15%를 넘는 적립금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생명보험(14.0%)과 손해보험(6.8%)은 이에 미치지 못함
  - 생명보험 적립금 증가율은 2019년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둔화되었으며, 손해보험 적립금 증가율은 둔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Box 3 그림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Box 3 표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구분	2018	2019	2020
은행	14.3	16.8	15.8
생명보험	9.1	15.6	14.0
손해보험	7.9	7.2	6.8
금융투자	14.3	18.8	18.6
근로복지공단	27.8	23.4	21.0
<b>전체</b>	<b>12.8</b>	<b>16.4</b>	<b>15.5</b>

자료: 금융감독원

## 저자약력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최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CEO Report 2021-05호

###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